

道교육청,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내실화 주력

고교학점제 따른 학점 취득 졸업 요건

‘예방 보충’ 중심 학습 지원 체계 강화

EBS·보충과제 등 활용 학습결손 해소

전남도교육청이 고등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 '예방·보충' 중심의 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고
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은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업 성취율 40% 또는 출석률 미달 시 보충학습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돕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기 전반에 걸쳐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다.

학기 초 미도달 예상 학생을 조기에 파악해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진단평가와 교과교사 추천 등을 통해 학생을 선정, 방과후 지도, 기초학력 프로그램, 교과 시간 내 보충지도,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등 다층적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기 말에는 과목별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지원한다.

방과후 또는 방학 기간에 온라인 콘텐츠(EB S), 학습 멘토링, 보충 과제 등 다양한 학습 경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 결손의 원인 중 정서·심리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해 예방·보충 지도 과정에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보성에서 고등학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업무 담당자 145명을 대상으

로 정책 지원 현장 안착을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서는 ▲고교학점제 기반에서의 예방·보충 지도 실천 전략 ▲정서·심리지원 프로그램 ▲학교 현장의 우수 운영 사례 ▲2026학년도 정책 변화 및 전남교육청 운영 방향 안내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지원 전략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힘들게 느껴졌는데 다른 학교 운영 사례와 구체적 절차를 배우며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철민 중등교육과장은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예방 중심의 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의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현장에서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1일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우산동 뉴빌리지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통행 불편’ 광주 송우초·광산중 통학로 생긴다

市교육청-광산구청 통학로 개선 MOU

인근 보도 확장·신설 등...안전문제 해결

광주 광산구 송우초등학교와 광산중학교의
통학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송우초교와 광산
중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부지 제공 및
활용 ▲행·재정적 협조 ▲공사 시행 및 유지관

리 역할 분담 등을 협력한다.

송우초, 광산중 통학로 개선사업은 지난해 12월 광산구와 협력해 참여한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두 학교는 통학로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학생, 지역민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물론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었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시교육청과 광산구는 협력해 광산중-송우초 남측 통학로 176m 구간의 보도 폭을 1m에서 2m로 확장하고 송우초 동편 114m(폭 2m) 구간에는 보도를 신설한다.

또 두 학교 주변 도로 일부는 안전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막 포장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서 시교육청은 통학로 조성에 필요한 학교 유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광산구는 통학로의 조성·관리 역할을 맡는다.

이정선 교육감은 “통학로 개선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광산구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광주시와 협력해 올해 말까지 광주문화초등학교와 광주양산초등학교 통학로에 폭 2m 규모의 보도와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광주양산초에는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활용하는 고위식 횡단보도를 조성한다.

/박선옥기자

